통깨 파는 정성위에 세운 '포교 보금자리'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7월 21일 회관 개소식

회관 18년 임대해 조직 운영
안정적 운영 위한 불사 발원
성지순례서 통깨 팔며 노력
입소문에 후원, 불사 원동력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은 7월 21일 부산 유원골든타워오피스텔에서 회관 이전 개소식을 개최했다.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회관이 7월 21일 새롭게 문을 열었다. 회관 이전 개소가 있기까지 부산지역단 포교사들이 하나 된 원력으로 보여준 성과라 의미가 크다. 포교사들의 원력은 각 회원뿐 아니라 부산 불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후원에 동참해 포교활동을 응원하는 마음까지 담긴 사무실이 됐다.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정분남)은 7월 21일 부산 유원골든타워오피스텔에서 회관 이전 개소식을 개최했다.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은 18년간 회관을 임대해 지역단을 운영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지역단은 안정적인 재정여건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1월 10대 단장 취임 후 회관 건립 계획을 세웠다.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소속 포교사들은 건립 계획 수립 후 지난해 3월부터 서울 조계사를 시작으로 매월 교구본사 성지순례와 기도에 입재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성지순례서 회관 불사금 마련을 위한 통깨를 판매한 것이다. 성지순례마다 불사에 동참하는 이들의 수가 늘어나며 이런 노력에 대한 입소문도 늘어났다. 이들의 원력은 부산불교계에 알려졌고 불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회관 건립불사에 십시일반 후원금이 모였다. 성지순례에 함께 동참한 삼보회가 1000만원을 후원하는 등 점점 후원의 폭도 넓어졌다. 포교사로 합격한 부산지역 24기 합격자들도 500만원을 후원했다.

이런 각계 성원으로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은 1년 만에 불사금 1억 원을 모을 수 있었다. 이 불사금을 바탕으로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은 올해 6월 14일 부산 서면 중심지에 위치한 유원골든타워오피스텔 501호를 매입했고, 내부공사에 들어갔다. 비용 절감을 위해 포교사들이 직접 내부단장과 청소 등을 도맡았다.

정분남 부산지역단장은 "수행이 곧 포교이며 포교를 곧 수행으로 삼아 하나되어 정진하고 발로 찾아가는 포교사로 성장할 것"이라고 다짐을 전했다.

이런 의미에 이날 회관 개소식에는 부산불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개소식에는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원허 스님, 송광사 율주 지현 스님, 조계종 포교사단 방창덕 단장을 비롯해 부산지역단 역대 단장과 정분남 단장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해 축하했다. 개소를 축하하며 내빈들의 인사말이 이어졌으며 축하 케이크 절단 및 축가,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경선 스님은 "새로운 자리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개원식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고 불법에 전념할 수 있는 훌륭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새 보금자리가 있기까지 여러 관계자 여러분이 동참하고 후원한 것을 안다. 포교활동의 구심점이 되어 발전의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선 스님은 후원금을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에 전달하고 격려했다. 정분남 단장은 "부산지역단 회관 개소식이 있기까지 역대 단장님들과 각 팀장님 그리고 640여명의 포교사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잘 이끌어 주셨기에 가능했다"며 "부산지역단은 교구본사 성지순례를 통해 기도하며 팀원들과 화합하고 소통해 왔다. 앞으로 새로운 보금자리서 열심히 정진하고 포교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포교사단 부산지역단은 1999년 부산·경남 포교사단으로 출범해 2012년 부산지역단으로 정식 출범했다. 이후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왕성한 포교 활동으로 전국 포교사단 가운데 모범 지역단으로 평가 받고 있다. 현재 군포교, 요양원 봉사, 문화재 안내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 가고 있으며 특히 전국 포교사단 가운데 유일하게 교구본사 성지순례를 진행해 회관을 건립하고 화합에 앞장서고 있다.

"올 여름 사찰음식 제대로 배워보자"

향적세계, 3차 수강 모집

세계적으로 사찰음식의 가치가 조명 받는 가운데, 사찰음식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강좌가 마련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이 운영하는 사찰음식 교육관 '향적세계'는 2019년 3차 사찰음식 정규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접수는 8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이번 강좌에서는 사찰음식의 정의와 만드는 법, 계절별 사찰음식과 인문학으로 본 사찰음식 등 단순한 강의 및 실습이 아닌, 사찰음식의 역사와 가치를 전반적으로 다룬다.

강좌는 초급·중급·고급과정이 각각 2개씩 개강하며, 스님들이 수강할 수 있는 승가 고급과정도 마련된다. 강좌는 8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12주간 총 12회 진행된다. 모든 과정을 수료한 수강생에게는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조계종 신도증 소시자와 스님은 수강료를 10% 할인받을 수 있다.

한편 향적세계는 초급·중급·고급 3단계 강좌로 사찰음식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사찰음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일반인과 승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이어오고 있다. 2011년 개관 이후 현재까지 약 1500명의 수강생을 배출했다. (02)2655-2776 **윤호섭 기자**

"사바 속히 오셔 보살원력 이뤄 주시길"

명사 광우 스님 영결식 7월 22일 엄수


광우 스님 영전에 헌화하는 참배객의 모습.

광우 스님의 법구를 모신 상여가 운구차에 오르자 스님의 마지막 모습에 대중들은 눈물을 터트렸다. '명사 태허당 광우 계민문도장 장의위원회'는 7월 22일 동국대 일산병원 영결식장에서 광우 스님 영결식을 거행했다.

광우 스님의 유지에 따라 문도장으로 엄수된 영결식에는 전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원행 스님,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영결식은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의 영결법요를 시작으로 태연 스님과 정목 스님의 헌다와 헌향에 이어 계민문도 대표 현정 스님의 행장 소개, 추도입정,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의 영결사, 전 중앙승가대학 총장 종범 스님의 법어, 조계종 총무부장 금곡 스님의 총무원장 원행 스님 추도사 대독,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과 전 동국대 교수 호진 스님, 서윤길 동국대 명예교수의 조사, 상도선원장 미산 스님의 조시, 한마음선원 스님들의 조가와 각 대표들의 헌화 등으로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수행바라미 2차 정진 성료

'간경' 주제로 월정사·상원사서
포교·신도단체서 30여 명 동참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이 주최하고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가 주관하는 '2019 수행바라미 2차 정진 연수'가 7월 20~21일 평창 월정사 및 상원사, 중대사자암 등에서 진행됐다.

금번 연수에는 △경제인불자연합회 △조계종산악회 △한국세무사불자연합회 △전국금융인불자연합회 △공무원불자연합회 △3교구·4교구·6교구신도회·23교구신도회 등 10개 단체의 실무자 약 3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포교원 신도국장 혜안 스님을 포함하여 포교원·중앙신도회 실무자도 동행했다.

수행바라미 연수 참가자들은 월정사 도착 후 대법륜전에서 조계종 원로의원 원행 스님을 법사로 입재식을 연 뒤 △상원사 △중대 사자암 △적멸보궁 순으로 올라가며 참배했다. 참가자들은 아침부터 내리던 장맛비로 적멸보궁까지 오르는 내내 오대산의 정취를 더욱 느낄 수 있었다.


평창 월정사에서 7월 20일 참가대중이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을 하고 있다.

적멸보궁에서 부처님의 진신사리 친견 후 다시 중대 사자암으로 내려온 참가자들은 이번 수행 주제에 맞는 반야심경 사경과 1배 1알 108염주 만들기, 참선 등 수행에 들어갔다.

사자암 주지 해여 스님은 격려법문을 통해 "경전은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어진다. 소리내지 않고 눈으로 읽을 때, 또 마음으로 읽을 때 모두 다른 깨달음과 깊이가 있으며 그 뜻을 음미하는 과정이 곧 수행"이라며 연수 주제인 '간경'의 중요성과 그에 맞는 수행법을 강조했다.

저녁공양 후 다시 월정사로 돌아온 참가자들은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의 법문을 시작으로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에 들어가 새벽예불을 끝으로 회향했다.

정념 스님은 "이번 기도를 통해 신행실천은 물론 불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언제 어디서나 당당한 불자가 되길 바란다"며 참가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진흥원, 덕조 스님 금강경 특강 개최

8월 5일부터 26일까지

대한불교진흥원 부설 대원불교문화대학은 송광사 승가대학 학장을 역임한 불일암 암주 덕조 스님 초청 '금강경 다시보기' 강좌를 개최한다.

덕조 스님 초청 금강경 다시보기 강좌는 8월 5일부터 26일까지 4주간 마포 다보빌딩 3층 다보원에서 진행되며 오후 2시부터 매일 2강씩 총 8강으로 구성됐다.

강의를 진행하는 덕조 스님은 법정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이사, 서울 길상사 주지, 송광사 율원교수사 및 승가대학장 등을 역임했다.

진흥원 측은 "이번 강좌는 현대적인 시각에서 금강경을 재해석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을 통해 세상사는 이치를 고민하고 사고의 외연을 넓혀보자"고 참여를 당부했다. (02)707-1072 **노덕현 기자**

